



임신호(한남대)

1. 서론

구약성서 사사기의 ‘입다 이야기’는 해석하기 난해한 본문이다. 입다는 ‘믿음의 사람’(히 11:32)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자’(삼상 12:11)였지만, 아웨께 인신제사(human sacrifice)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에 입다 이야기의 해석사는 입다의 인신제사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¹⁾ 그런

* 이 논문은 필자의 2016년 2월 12일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내전의 관점에서 본 입다 이야기(삿 10:6-12:7)의 통일성”에서 핵심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1) 입다 이야기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입다가 번제의 희생 제물로 딸을 죽였느냐, 아나나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 ‘제이론적 해석’과 여성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된 폭력의 희생양으로서의 입다의 딸에 대한 ‘여성신학적 해석’과 본문을 내러티브적인 접근으로 연구를 시도한 ‘문학 비평적 해석’, 그리고 최근에는 입다가 인신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당시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연구된 ‘사회·문화적 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해, 임신호, “내전의 관점에서 본 입다 이야기(삿 10:6-12:7)의 통일성”,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4-21.

데 입다의 인신제사에 대한 성서의 구체적인 설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래서 그 해석사 또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해석의 난해성은 입다의 인신제사 이야기 다음에 전개되는 사사기 12장 1-7절의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와의 내전 이야기에 또 나타난다. 이는 12장 1-7절의 내전이 11장의 인신제사 이야기 이후 입다 이야기의 전환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석자들은 두 본문에 대한 연계성을 찾고자 하지 않았다. 또한 두 본문은 통일성이 없으며, 이를 개별적인 이야기로 취급하여 인신제사 이후의 내전 이야기는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입다 이야기에 대한 해석은 인신제사에만 집중된 반면, 에브라임 지파와의 내전에 대한 연관성은 찾지 않았다.

입다 이야기의 해석은 인신제사 이야기가 나오는 사사기 11장 29-40절의 본문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신명기 사가가 편집한 입다 이야기의 서론은 사사기 10장 6절부터이며, 결론은 에브라임 지파와의 내전을 다루고 있는 사사기 12장 1-7절까지이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는 그동안 입다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 사사기 11장의 인신제사 이야기만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는 한계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입다 이야기를 편집한 신명기 사가의 편집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전체 본문의 통일성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황에 의하여 이 연구에서는 신명기 사가가 사사기 10장 6절부터 12장 7절까지의 입다 이야기를 개별적인 주제로 편집하지 않고 통일성 있게 편집하였다는 것을 입다 이야기에 나타난 신학적인 요소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규명할 것이다.

2. 입다 이야기에 나타난 신학적 요소

입다 이야기는 신명기 사가가 제시하고 있는 전체적인 신학적 배경

에 맞게 편집되었다. 또한 사사기에서 반복하여 나타나는 신학적인 구조의 틀에 포함된 이야기이다.²⁾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죄(우상숭배)’, ‘이방 나라에 의한 야웨의 심판’, ‘야웨를 향한 이스라엘의 회개와 고통의 부르짖음’, ‘야웨에 의한 구원자 사사의 부름’이라는 반복된 패턴의 신학적 구조로 편집되었다.³⁾ 브뤼그만(W. Brueggemann)은 신명기 사가가 사사기에서 ‘죄-심판-부르짖음-구원’이라는 공식의 반복을 통해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회의 무질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⁴⁾ 이러한 네 가지의 반복 패턴인 ‘죄-심판-부르짖음-구원’의 신학적 구조는 입다 이야기(삿 10:6-12:7)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하여 나타난다. 이는 입다 이야기가 사사기의 반복구조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입다 이야기에 나타난 신학적 요소는 ‘종교적 죄’와 ‘도덕적 죄’로 분류할 수 있다. ‘종교적 죄’는 ‘우상숭배’와 ‘불순종’이다. 그리고 ‘도덕적 죄’에는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죄’가 있다. 이와 같은 요소는 사사기에 나오는 내전들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드온과 숙곳, 브누엘과의 내전’, ‘아비멜렉과 세겔과의 내전’,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와의 내전’, ‘단 지파와 라이스와의 내전’, ‘이스라엘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와의 내전’에서는 ‘우상숭배’, ‘불순종’, ‘개인의 죄’, ‘공동체의 죄’라는 신학적 요소들을 통일성 있게 배열하고 있다.⁵⁾

2) T. W. Cartledge, *Vows in the Hebrew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Sheffield: JSOT Press, 1992), 175.
 3) J. A. Soggin, *Judges* (Old Testament Library; Bloomsbury: SCM Press, 1981), 43.
 4) W. 브뤼그만, T. 리나펠트, 「구약개론」(개정판, 김은호/홍국평 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234-235. 원제는 Walter Brueggemann and Tod Linafelt,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The Canon and Christian Imagination*, Second Editi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2).
 5) 임신호, 앞글, 25-81.

1) 종교적 죄

신명기 사가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야웨를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우상숭배를 한 결과, 주변 족속의 압제를 당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앗시리아와 바벨론의 손에 패망하게 되었다는 종교적인 원인론을 설명하고 있다.⁶⁾ 이들은 이스라엘이 주변에 위치한 고대 근동 지역의 종교를 섬겼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스라엘이 주변의 이방 족속의 종교를 섬긴 행위를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규정하였다.⁷⁾ 입다 이야기에서도 신명기 사가가 제시하고 있는 ‘종교적 죄’인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야웨의 뜻에 대한 ‘불순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입다 이야기에서는 입다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신을 섬긴 우상숭배와 그들의 제의 관습이었던 인신제사를 행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⁸⁾ 이는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삿 10:6-11:28)와 입다의 인신제사 이야기(삿 11:29-40), 그리고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간에 발생하였던 내전 이야기(삿 12:1-7)에서 통일성 있게 나타난다. 특별히 입다가 행한 인신제사는 고대 근동의 가나안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행했던 제의 관습이었다.⁹⁾ 이것은 신명기 사가의 관점에서 볼 때 명백한 우상숭배였다.¹⁰⁾ 신명기 사가는 인신제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들은 고대 근동에서 행했던 인신 제의가 이스라엘에 유입된 후 야웨 제의와 혼합되어 행해졌다고 지적하였다.¹¹⁾ 이와 같은 이방 제의의 풍습은

6) 존 콜린스, 「히브리성서 개론」(유연희 역), (경기도: 한국기독교연구소, 2011), 169-170. 원제는 John J. Collins, *A Short Introduction to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MN: Augsburg Fortress Press, 2007).
 7) P. D. Miller, *Deuteronomy*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129-130.
 8)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인신제사를 연구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인신제사에 영향을 주었던 주변에 위치한 고대 근동 지역의 인신제사를 살펴봐야만 한다. 이는 구약성서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고대 근동 지역의 인신제사 연구를 통해서 구약성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인신제사를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영진, “구약성서 연구에 있어서 고대 근동 연구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9 (2000), 259-288.
 9) J. Milgrom, *Leviticus 17-22*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2000), 1551.
 10) W. Brueggemann, *Deuteronomy* (AOTC; Nashville: Abingdon Press, 2001), 146.
 11)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던 주술적 행위 등은 고대 근동 세계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대해, 강승일, “구약 성서의 인류학”, 『구약논단』56집 (2015년 6월), 177-204. 참고.

이스라엘의 야웨 종교와 혼합되었으며, 입다의 경우처럼 야웨를 향해 인신제사를 드렸던 경우도 발생하였다.¹²⁾

사사기 10장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 원인은 그들이 행했던 우상숭배에 있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11장의 입다의 인신제사 이야기에서도 반복된다. 그리고 이들이 행한 우상숭배의 결과로 사사기 12장에 가서는 입다와 에브라임간의 내전이 발생하였다.

입다 이야기에 나타난 내전은 우상숭배에 대한 야웨의 심판을 의미한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전쟁은 '정의를 세우기 위한 도덕적, 종교적인 신의 심판'으로 이해하였다.¹³⁾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도 '전쟁'은 야웨의 심판 행위였다.¹⁴⁾ 입다 이야기에 나오는 암몬과의 전쟁과, 에브라임 지파와의 내전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상숭배에 대한 야웨의 심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입다의 불순종은 내전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 왜냐하면 입다는 인신제사에 대해 금기시하며, 이를 행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야웨의 명령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의 불순종은 에브라임 지파와의 내전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1) 우상숭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은 야웨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계명을 어기고 우상숭배를 하였다.¹⁵⁾

유일신인 야웨 하나님을 섬겼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예배에서 가

나안의 신인 바알숭배는 지속적인 위협의 대상이었다.¹⁶⁾ 신명기 사가는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겼던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지적한다(신 12:31; 18:10-12).

사사기 10장 8-9절에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18년 동안의 곤고함의 원인은 그들이 행했던 우상숭배 때문이었다.¹⁷⁾ 잔젠(D. Janzen)은 "사사기 10장 6-16절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방 제의를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상숭배에 대한 결과로 암몬은 침입하였고,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였으며, 사사기 12장에 가서는 에브라임 지파와의 내전까지 발생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¹⁸⁾

이스라엘이 행했던 우상숭배와 입다가 행했던 이교도의 가증한 인신제사는 입다 이야기에 나타난 '종교적 죄'이다. 즉, 입다 이야기는 우상숭배를 가증히 여겼던 신명기 사가의 관점에 의해 편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삿 10:6-11:28)와 입다의 인신제사 이야기(삿 11:29-40), 그리고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간에 발생하였던 내전 이야기(삿 12:1-7)는 우상숭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둘째, 입다 이야기에 나타난 우상숭배는 원인과 결과로 서로 연결되어 신명기 사가의 편집 의도대로 통일성을 갖추어 편집되었기 때문이다.

입다의 인신제사의 원인이 되었던 그의 서원과 관련하여 소긴(J. A. Soggin)은 입다의 서원은 무분별한 서원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열왕기하 3장 27절에 나오는 모압 왕 메사가 전쟁의 위기 시에 아들을 인신제사 드린 것과, 입다의 인신제사를 비교하였다. 이에 그는 입다의 경우도 모압 왕 메사처럼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의 제물로 죽였다고 설명하였다.¹⁹⁾ 입다는 전쟁에서의 승리와 이

12) W. Eichrodt, *Ezekiel* (Old Testament Library; Bloomsbury: SCM Press, 1970), 321-322.

13) R. M. Good, "The Just War in Ancient Israel",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4/3 (1985), 385-400.

14) 강사문, 「구약의 하나님」(서울: 도서출판 한국성서학, 1999), 223.

15) W. 브뤼그만, *룻*, 198.

16) J. Day, *Yahweh and the Gods and Goddesses of Canaan* (Sheffield: JSOT, 2000), 70.

17) J. C. McCann, *Judges* (Interpret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56.

18) D. Janzen, "Why the Deuteronomist Told about the Sacrifice of Jephthah's Daughter", *Journal for the Study of Old Testament* 29.3 (2005), 341-345.

19) J. A. Soggin, *룻*, 215-219.

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인신제사를 서원하고 여기에 연루된 자신의 딸을 죽였다. 결국 그는 아웨께서 혐오하셨던 이교도의 제의 풍습을 행했다. 부쉬(G. Bush)는 입다가 행했던 인신제사는 이교도의 풍습으로서 입다는 이교도의 풍습을 따른 것이었으며, 그러한 입다의 행동은 반이교도적인 행동이었다고 지적하였다.²⁰⁾ 입다가 행한 인신제사는 신명기 사가의 관점에서 볼 때 명백한 우상숭배였다.

한편, 사사기 12장에 나타난 내전은 암몬과의 전쟁의 이유처럼 이스라엘과 입다가 행한 우상숭배와 인신제사에 대한 심판의 결과임을 신명기 사가는 제시하고 있다.²¹⁾ 신명기 사가가 설명하고 있는 우상숭배에 대한 결과로서의 내전은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와의 내전 이야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사사기 9장의 아비멜렉과 세겜 간의 내전과, 사사기 19-20장에 나오는 베냐민과 이스라엘의 내전 이야기도 입다 이야기처럼 우상숭배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다. 우상숭배는 사사 시대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내전의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였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아웨의 약속을 어기고 이방족속의 우상을 섬겼다. 이스라엘이 행했던 우상숭배는 아웨로부터 그들 자신을 분리하게 하게 만들었다.²²⁾

입다 이야기에 나타난 우상숭배는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삿 10:6-11:28)와 인신제사 이야기(삿 11:29-40), 그리고 내전 이야기(삿 12:1-7)에서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2) 불순종

입다 이야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순종’ 역시 ‘종교적 죄’의 요인에

20) G. Bush, *Notes on Judges* (New York: Newman and Ivison, 1852; reprint, Minneapolis: James and Klock, 1976), 165.

21) R. H. O'Connell, *The Rhetoric of the Book of Judges* (Leiden: Brill, 1996), 182-187.

22) C. Samuel, "Reconsidering Jephthah's Story in Asian Perspective", *Journal of Asian and American Theology*, Vol. 6 (2006), 30-45.

해당된다. 신명기 사가는 입다 이야기의 세 본문인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와 ‘입다의 인신제사 이야기’, 및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와의 내전 이야기’에서 아웨에 대한 ‘불순종’의 사건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에서 편집자는 이 전쟁의 원인을 이스라엘이 아웨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삿 10:6, 13-14). 신명기 사가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던 ‘인신제사’, ‘침치는 일’, ‘주문을 외우는 일’, ‘죽은 자의 혼백을 불러내는 일’ 등의 종교적인 풍습을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한다. 이는 이스라엘이 아웨의 명령에만 순종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조건이다.²³⁾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아웨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였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 차일즈(B. S. Childs)는 “사사 시대는 정경에 의하면 쇠퇴와 불순종의 시대로 해석되었다”고 설명하였다.²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아웨를 실망시켰다. 아웨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행동은 아웨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이었다.²⁵⁾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삿 10:6-11:28)에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아웨만을 섬겨야한다는 명령을 포기하고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갔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아웨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이었다.

둘째, 입다 이야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순종은 ‘입다의 인신제사 이야기’에서 계속 나타난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인

23) 강성열 외, 『역사비평주석 신명기』(서울: 감신대출판부, 2004), 376.

24) B. S. Childs, *Old Testament Theology in a Canonical Contex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벤 C. 올렌버거, 엘머 A. 마르텐스 and G. F. 하젤 역음, 『20세기 구약신학의 주요 인물들』(강성열 역), (경기도: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488. 원제는 Ben C. Ollenburger, Elmer A. Martens and Gerhard F. Hasel, Under the title of *The Flowering of Old Testament Theology* edited (Indiana: Eisenbrauns, 1992).

25) J. C. McCann, *룻*, 141.

신제사의 서원을 하였다. 하지만 신명기 사가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야웨의 명령에 반(反)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신 12:31; 18:10-12). 입다의 인신제사에 나타난 입다의 '불순종'은 그가 야웨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딸에 대한 인신제사를 임의로 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율법의 조항을 어긴 그의 불순종이었다.

셋째, '입다와 에브라임지파의 내전'의 원인 또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암몬과의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입다의 인신제사 행위였다. 신명기 사가는 입다 이야기에 나타난 내전의 원인을 이스라엘이 행했던 이방 신을 섬긴 우상숭배와 야웨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불순종에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²⁶⁾ 즉, 입다 이야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불순종은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입다의 인신제사 이야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입다의 불순종이었으며, 이러한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사사기 12장 1-7절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신명기 사가는 암몬과의 전쟁 원인을 이스라엘이 행했던 우상숭배의 결과로 보았다.

사사기 12장에 나오는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와의 내전 이야기는 앞의 두 본문(삿 10:6-11:28; 11:29-40)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입다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입다 이야기의 세 본문은 '불순종'이라는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원인과 결과로서 통일성 있게 편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도덕적 죄

입다 이야기에 나타난 '도덕적 죄'는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삿 10:6-11:28)와 입다의 인신제사 이야기(삿 11:29-40), 그리고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와의 내전 이야기(삿 12:1-7)에서 통일성 있게 나타난다. 즉,

26) R. M. Good, *룻*, 385-400.

입다 이야기는 '개인'과 '공동체'의 악행이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악은 점점 고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별히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삿 10:6-11:28)는 '개인의 죄'보다는 '공동체의 죄'로 보아야 한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웨를 버린 것과 이들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야웨께 묻지 않고 공동체 스스로가 상의하고 입다를 찾아가 스스로 지도자를 세웠다는 점이다.²⁷⁾

입다의 인신제사 이야기(삿 11:29-40)에서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 과정에서 두 가지 개인적인 죄를 범하였다. 첫째, 입다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 무모한 서원을 했다. 둘째, 그는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의 제물로 학살하였다. 또한 입다의 인신제사 이야기에 나타난 공동체의 죄도 두 가지로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 첫째, 입다의 이복형제들과 길르앗공동체의 장로²⁸⁾들은 입다의 상속권을 빼앗고 그를 추방하였다. 둘째, 이들은 입다가 자신의 딸을 죽일 때 그녀의 죽음 앞에 침묵하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와의 내전 이야기(삿 12:1-7)에 나타난 개인적인 죄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입다의 학살행위이다.

한편,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와의 내전 이야기에 나타난 공동체의 죄도 두 가지로 나타난다. 에브라임 지파의 죄와 길르앗 공동체의 죄이다. 먼저, 에브라임 지파의 죄는 이들이 전쟁참전을 거부하였지만, 후에 전쟁에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다에게 시비를 물으며, 입다와 그의 집을 불사르며 학살하겠다는 행동이었다. 길르앗 공동체의 죄는 이들이 사사기 12장에서 발생한 에브라임에 대한 무차별 대학살에 동참하였다는 것이다.

27) '야웨의 전쟁'의 특징은 공격의 시작을 야웨께 물어보고 시작하는 것이다(삿 20:18). 하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을 위해 야웨께 묻지도 않았으며, 임의로 입다를 지도자로 세웠던 것이었다. 이에 대해, 임신호, *룻*, 64. 참고.

28)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장로'들은 권위를 가진 계급으로 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특별한 그룹으로서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자들이다. 이에 대해, H. Reviv, *The Elders in Ancient Israel* (Jerusalem: Magnes Press, 1989), 8 참고.

(1) 개인의 죄

입다가 자신의 딸에게 행했던 인신제사에 대해 신명기 사가는 그들이 야웨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으로 묘사한다. 이들은 입다의 무모한 서원을 통해 이스라엘 영웅의 실패함을 보여주고 있다.²⁹⁾

입다에게 나타난 ‘개인의 죄’는 세 가지이다. 첫째,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조건으로 야웨께 서원을 하였는데, 이 서원은 야웨께서 혐오하시는 인신제사(신 12:31; 18:10-2)의 서원이었다. 둘째, 입다는 서원 이후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에 돌아올 때,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무명의 딸에게 자신이 하였던 서원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삿 11:35). 셋째, 입다는 전쟁에 불참하고서도 자신을 찾아와 거짓을 말하고 험박한 에브라임 지파를 요단강 나루에서 ‘십불렛’이라는 발음 테스트를 통해 사만 이천 명에 대한 무차별 대량 학살을 하였다(삿 12:1-6).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입다에게 나타난 그의 ‘개인의 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입다에게 나타난 개인의 죄는 그가 딸에게 행한 인신제사였다. 왜냐하면 입다가 행했던 인신제사는 이방제의를 답습한 것이기 때문이다.³⁰⁾ 입다의 서원과 그가 행한 인신제사와 관련하여 콜린스(J. J. Collins)는 “입다 이야기는 입다의 성급한 서원으로 인하여 인신제사의 제물로 죽게 되었던 딸의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입다의 서원으로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며, 또한 성서 본문은 그가 서원을 지킨 것이 잘못되었다고 어떠한 암시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입다를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입다의 서원에 대한 성서의 부

29) B. P. Robinson, “The Story of Jephthah and his Daughter: Then and Now”, *Biblica* 85 (2004), 331-348.

30) A. 바이저, K. 엘리거, 『소예언서』(한국신학연구소 역), (국제성서주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241. 원제는 Artur Weiser, Karl Elliger, *Das Buch der zwölf Kleinen Propheten* (Göttingen: 1975).

정적인 평가가 없기 때문에 그의 서원과 이행에 대한 평가의 신중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³¹⁾ 마커스(D. Marcus)도 입다가 행했던 서원은 애매한 서문의 형식적인 문구로 기록되어 있으며, 본문에서는 입다에 대한 비난이 없다고 언급하였다.³²⁾ 그러나 쿠퍼(V. C. Cooper)는 입다의 인신제사에 대한 해석은 재해석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녀는 입다는 ‘영웅’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른 ‘앞잡이’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하였다.³³⁾ 쿠퍼의 주장처럼 입다 이야기에 나타난 입다는 ‘믿음의 사람’임과 동시에 야웨께서 혐오하였던 이교도의 제사를 드렸던 불순종의 사람이었다.³⁴⁾

입다는 전쟁의 승리 이후에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딸에게 야웨를 향하여 행했던 인신제사 서원은 결코 무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삿 11:35). 그렇다면 입다의 서원은 무를 수 없었던 서원이었는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무를 수 있는 서원’이었다. 모세의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서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חָרָם**(헤렘/바쳐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אָסֵר**(네데르/서원)이다. ‘헤렘’의 뜻은 ‘바쳐진 것’, ‘금지’로서 야웨께 바쳐진 것은 결코 무를 수 없으며, 여기엔 사람도 바쳐진다면 결코 무를 수 없다는 의미가 있다.³⁵⁾ 즉, 상환할 수 없는 서원이 ‘헤렘’인 것이다. 하지만 ‘네데르’는 헤렘과는 반대의 개념이다. ‘서원’의 뜻을 가진 ‘네데르’는 화목제의 한 종류로서 희생제사의 목록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레

31) J. J. Collins, *위클리*, 174.

32) D. Marcus, *Jephthah and His Vow* (Lubbock: Texas Tech Press, 1986), 22-49.

33) V. C. Cooper, “Some Place To Cry: Jephthah’s Daughter and the Double Dilemma of Black Women in Americ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44 (2003), 181-191.

34) 이에 대해 마커스는 입다는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교도의 관습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D. Marcus, *위클리*, 46.

35) Lohfink, “*ram;rem*”, *TDOT*, Vol. 5 (Ge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86), 180-199; L. Koehler and W. Baumgartner, *HALOT*, Vol. 1 (Leiden: Brill, 2001), 354; L. J. Wood, 『구약원어신학사전』(번역위원회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6), 406-407. 원제는 R. Laird Harris and Gleason L. Archer, Jr and Bruce K. Waltke,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Vol. 1 (Chicago: Moody Press, 1980).

7:16). ‘네데르’는 아웨께 구두로 약속되어진 것을 의미한다(민 30:4). 이 서원은 인간과 아웨와의 약속으로서, 아웨의 은총(민 21:1-3)에 대한 보답으로 서원된 일종의 감사제물이다. 중요한 것은 아웨께 드려진 것이 적합하지 못한 경우에 제물을 바치는 자는 다른 대체 제물을 준비하여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레 27:9-13).³⁶⁾ 즉, ‘네데르’는 서원한 자가 다른 대체물로 상환할 수 있었던 서원이었다.

입다의 서원에 사용되었던 ‘네데르’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입다는 딸을 죽이지 않고,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도 이를 상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딸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다른 대체물을 준비하지 않았다. 즉, 그는 딸의 죽음을 상환하지 않았다. 그가 행한 인신제사는 이방제의를 답습한 행동이었으며, 이는 아웨에 대한 불순종의 악행이었다.

둘째, 입다에게 나타난 개인의 죄는 자신의 딸을 불태워 죽인 학살 행위였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성급한 서원에 연루되었다. 특별히 그녀는 입다의 단 하나 밖에 없는 자녀였다.³⁷⁾ 밈(M. Bal)은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폭력에 의해 살해 당한 희생양이라고 하였다.³⁸⁾ 고대 사회에서 신에게 자신의 자녀를 번제물로 불태워 죽인 학살 행위는 가부장적 사회의 영향에 기인한다.³⁹⁾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의 기준으로 입다가 딸을 죽인 행위를 본다면, 이는 당연한 행동일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도덕적인 기준에서 볼 때, 입다의 행동은 딸에 대한 폭력 행위로 보아야

한다.⁴⁰⁾ 입다가 딸에게 행한 폭력행위와 번제의 제물로서 그녀를 억압 하였던 것은 가부장제도의 문제점이었다.⁴¹⁾ 입다가 딸을 죽인 행동은 ‘폭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사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도덕성의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다.⁴²⁾

자식을 아웨께 제물로 불태워 죽이려한 것은 입다 이야기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도 있다. 특별히 자식을 죽인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웨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는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⁴³⁾ 아브라함의 경우는 윤리적인 문제보다 종교적인 문제에 충실하였다. 물론 입다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할 수 있다. 하지만 입다의 경우는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충실하지 못하였다.⁴⁴⁾ 그는 아웨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임의대로 딸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는 딸에 대한 명백한 학살행위로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행한 악행이며, 개인이 개인에게 행한 악행이다.

셋째, 입다에게 나타난 개인의 죄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입다의 학살행위이다. 이는 에브라임 공동체에 대한 입다 개인의 행동으로서, 공동체에게 행한 개인의 악행이었다.

특별히 입다의 인신제사와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와의 내전 이야기에 나타난 개인적인 죄의 통일성을 찾는다면 입다에게 나타난 폭력성은 학

36) Kaiser, “גִּדְוָה”, *TDOT*, Vol. 9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98), 242-55; L. Koehler and W. Baumgartner, *HALOT*, Vol. 1 (Leiden: Brill, 2001), 674-675; L. J. Coppes, 『구약원어신학사전 下』(번역위원회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6), 693-694. 원저는 R. Laird Harris and Gleason L. Archer, Jr and Bruce K. Waltke,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Vol. 2 (Chicago: Moody Press, 1980).

37) D. Marcus, 윗글, 28.

38) M. Bal, “Dealing with Women: Daughter in the Book of Judges”, *The Book and the Text: The Bible and Literary Theory* (Oxford: Basil Blackwell, 1990), 17.

39) V. C. Cooper, 윗글, 181-191.

40) T. M. O'Donovan, “Jephthah's Daughter: Interrogating the Text, Interrogating Our Lives”, *Journal of Religion and Abuse* Vol. 7 (2005), 5-17.

41) 이에 대해, M. Sjberg, “Jephthah's Daughter as Object of Desire or Feminist Icon”, *Biblical Interpretation* 15 (2007), 377-94; J. R. Tatlock,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5 (Nashville: Abingdon, 2009), 18-9; R. de Vaux, 『구약시대의 종교풍습』(이양구 역), (서울: 솔로몬, 1994), 123-135. 참고.

42) D. Janzen, 앞의 글, 339-357.

43) 천사무엘,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 『성경연구, 8집』(2002년), 45-56.

44) 입다의 서원의 문제점에 대해, M. Brettler, “The Book of Judges: Literature as Politic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8 (1989), 395-418; M. J. Smith, “The Failure of the Family in Judges, Part 1: Jephthah”, *Bibliotheca Sacra* 162 (2005), 279-98; M. Bal, “Virginity: Toward a Feminist Philosophy”, *Dispositio* 12 (1987), 66-67. 참고.

살로 이어졌다는 것과, 이 학살 행위는 갈수록 고조되어 전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⁴⁵⁾ 즉, 사사기 11장에서 입다는 자신이 야웨께 한 서원을 지키고자 자신의 무남독녀를 죽였는데, 딸에 대한 그의 학살 행위는 갈수록 고조되어 갔다. 그 결과 사사기 12장의 에브라임 지파와의 내전에게서 에브라임 지파 사만 이천 명을 죽이는 대량 학살 행위로 나타났다.

(2) 공동체의 죄

입다 이야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동체의 죄는 길르앗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나타난다. 길르앗 지파에게는 세 가지 공동체의 죄가 나타난다. 첫째, 길르앗 지파의 장로들과 입다의 이복형제들은 불법재판으로 입다를 공동체에서 추방하였다는 것, 둘째, 입다가 자신의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딸을 번제의 희생물로 불태워 죽일 때 이들은 입다의 인신제사에 동조하고 침묵하였다는 것, 셋째, 에브라임 지파와의 내전에서 길르앗 공동체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였다는 것이다.

에브라임 지파의 죄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 그들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입다의 전쟁 참전 요구를 수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전쟁에 불참하였다. 둘째, 전쟁 이후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에게 찾아가 전쟁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자 하였지만, 이들의 행위는 거짓과 협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신명기 사가는 입다 이야기에서 그들이 야웨를 버리고 우상숭배를 하였다고 설명한다(삿 10:6-7). 이스라엘 공동체의 우상숭배는 야웨에 대한 배신행위였으며, 이와 같은 공동체의 행동은 죄로 간주되었고, 이들의 악행은 결국 야웨의 분노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⁴⁶⁾

45) 강성열, "죽음의 사회적 폭력성에 대한 원시 종교의 대응", 『신학이해』 41집 (2001년), 11-31.

46) D. Janzen, 『유포』 347.

사사기 11장에 나타난 공동체의 악행은 길르앗 지파에게서 나타났다. 이들이 행했던 악행은 첫째, 입다에게 행한 길르앗 공동체의 악행과, 둘째, 입다의 딸의 죽음 앞에 침묵한 그들의 악행이며, 셋째,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대량 학살이었다. 입다에게 행한 길르앗 공동체의 악행은 다음과 같다. 입다의 이복형제들과 길르앗 공동체의 장로들은 입다가 받을 상속권의 문제를 놓고 그가 불법의 자식이기에 줄 수 없다고 하여 그를 추방하였다는 것이다.

입다가 받을 유산의 상속권 문제에 대해 혹자는 "입다의 출신이 비합법적인 아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인 권리도 없었다"고 말하였다.⁴⁷⁾ 그러나 커시(J. Kirsch)와 버틀러(T. C. Butler)는 반대의 주장을 제기하였다. 먼저, 커시는 출신의 문제로 입다가 받을 유산의 상속권이 있으나, 없느냐의 문제에 대해 "입다는 그의 출신이 첩의 자식이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복형제들의 거부와 장로들의 승인으로 인하여 그는 유산도 상속받지 못하고 추방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길르앗 공동체가 입다에게 행했던 폭력 행위였다"라고 설명하였다.⁴⁸⁾ 버틀러 또한 입다의 아버지인 길르앗의 죽음 이후 형제들의 상속권 고소와 장로들의 불법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행위가 입다에 대한 길르앗 공동체의 악행이라고 설명한다.⁴⁹⁾

입다 이야기에 나타난 공동체의 죄는 공동체가 행한 악행에 대해 침묵하고, 이를 동조한 행위에서 그 통일성을 찾아볼 수 있다. 입다의 인신제사에 나타난 공동체의 죄는 입다가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할 때에 이를 반대한 자들이 없었다는 것이며, 오히려 이들은 입다가 추방당할

47) 김익원/민영진, 『사사기, 룻기』(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444.

48) 조너선 커시, 『길르앗의 창녀: 성서의 금지된 이야기』(오성환 역), (서울: 까치, 1997), 248. 원제는 Jonathan Kirsch, *The Harlot by the Side of the Road: Forbidden Tales of the Bibl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49) T. C. Butler, *Judges* (Word Biblical Commentary 8; Nashville: Word books, 2009), 281.

때에 이를 동조했다. 또한 입다의 딸이 번제의 희생 제물로 죽어갈 때에 길르앗 공동체의 그 누구도 이를 멈추고자 했던 사람이 없었다. 이와 같은 백성들의 침묵은 입다의 개인적인 학살 행위에 동참한 공동체의 죄이다.

공동체의 죄는 사사기 12장에 가서 길르앗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행한 공동체의 악으로 나타난다. 먼저, 길르앗 공동체의 악은 ‘십불렛’이라는 발음을 사용하여 에브라임 지파를 무차별 학살하였다는 점이다. 반면, 에브라임 공동체의 악은 그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지파가 전쟁에 불참했음에도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다와 그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협박하였던 잔혹성이었다.

신명기 사가는 입다 이야기에서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의 ‘도덕적 죄’를 제시하고자 했다. 이에 입다 이야기에서는 사사기의 주제인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삿 17:6; 21:25)”는 것을 입다와 길르앗 공동체와 그리고 에브라임 공동체의 죄의 모습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개인이 행한 죄는 갈수록 고조되어 갔으며, 결국 그러한 악행은 공동체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 결론

지금까지 신명기 사가의 관점에서 본 입다 이야기(삿 10:6-12:7)의 신학적 통일성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입다의 인신제사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던 입다 이야기의 해석에 대한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신명기 사가의 관점에서 입다 이야기에 나타난 신학적인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입다 이야기에 나타난 신학적 요소는 ‘종교적 죄’와 ‘도덕적 죄’가 있으며, 종교적 죄는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도덕적 죄는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죄’로 세분화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신명기 사

가는 입다 이야기의 세 본문인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삿 10:6-11:28)와 입다의 인신제사 이야기(삿 11:29-40)와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와의 내전 이야기(삿 12:1-7)를 개별적인 주제로 편집한 것이 아닌, 신학적인 통일성을 갖추어 편집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입다 이야기의 세 본문은 신명기 사가의 편집 의도에 따라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불순종’, 그리고 ‘개인의 죄’, ‘공동체의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세 본문은 각 이야기의 원인과 결과로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신학적인 요소들은 입다 이야기의 서론부분인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삿 10:6-11:28)로 시작하여 인신제사 이야기(삿 11:29-40)와 에브라임 지파와의 내전 이야기(삿 12:1-7)에 이르러 고조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신명기 사가는 하나의 신학적인 주제를 갖고 입다 이야기의 세 본문을 통일성 있게 편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사사기 11장 29-40절에 나타난 입다의 인신제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행된 기존의 입다 이야기 연구는 향후 입다 이야기의 전체 본문(삿 10:6-12:7)을 중심으로 신명기 사가의 관점에 의해 다각도로 해석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4. 참고문헌

- 강사문, 「구약의 하나님」(서울: 도서출판 한국성서학, 1999).
- 강성열 외, 「‘역사비평주석’ 신명기」(서울: 감신대출판부, 2004).
- 강승일, “구약성서의 인류학”, 「구약논단」제56집 (2015년 6월), 177-204.
- 김영진, “구약성서 연구에 있어서 고대 근동 연구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제9집 (2000년 10월), 259-288.
- 김의원/민영진, 「사사기, 룯기」(100주년기념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임신호, “내전의 관점에서 본 입다 이야기(삿 10:6-12:7)의 통일성”,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천사무엘,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 『성경연구』제8권 제 12호 (2002년), 45-56.

드보, R., 『구약시대의 종교풍습』(이양구 역), (서울: 솔로몬, 1994).

브뤼그만, W., 리나펠트 T., 『구약개론』(개정판, 김은호/홍국평 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원제 Brueggemann Walter and Linafelt Tod,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The Canon and Christian Imagination, Second Editi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2).

콜린스, J. J., 『히브리성서 개론』(유연희 역), (경기도: 한국기독교연구소, 2011). 원제 Collins John J., *A Short Introduction to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MN: Augsburg Fortress Press, 2007).

해리스 레어드, R., 아처 글리슨 L., and 윌트케 브루스, K., 구약 원어신학사전 上·下(번역위원회), (서울: 요단출판사, 1986). 원제 Harris Laird R., Archer, Jr Gleason L., and Waltke Bruce K.,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2 vols. (Chicago: Moody Press, 1980).

커시, 조너선, 『길옆의 창녀: 성서의 금지된 이야기』(오성환 역), (서울: 까치, 1997). 원제 Kirsch Jonathan, *The Harlot by the Side of the Road: Forbidden Tales of the Bibl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Ollenburger, B. C., Martens, E. A., and Hasel, G. F. 『20세기 구약신학의 주요 인물들』(강성열 역), (경기도: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바이저, A., 엘리거, K., 『소예언서』(한국신학연구소 역), (국제성서주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원제 Weiser Artur, Elliger Karl, *Das Buch der zwlf Kleinen Propheten* (Göttingen: 1975).

Bal, M., “Dealing with Women: Daughter in the Book of Judges”, *The Book and the Text: The Bible and Literary Theory* (Oxford: Basil Blackwell, 1990).

_____, “Virginity: Toward a Feminist Pilosophy”, *Dispositio* 12 (1987), 66-82.

Botterweck G. J., and Ringgren, H.,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15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74-2006).

Brettler, M., “The Book of Judges: Literature as Politic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8 (1989), 395-418.

Brueggemann, W., *Deuteronomy* (AOTC; Nashville: Abingdon Press, 2001).

Bush, G., *Notes on Judges* (New York: Newman and Ivison, 1852; reprint, Minneapolis: James and Klock, 1976).

Butler, T. C., *Judges*. (Word Biblical Commentary 8; Nashville: Word books, 2009).

Cartledge, T. W., *Vows in the Hebrew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Sheffield: JSOT Press, 1992).

Childs, B. S., *Old Testament Theology in a Canonical Contex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Cooper, V. C., “Some Place To Cry: Jephthah’s Daughter and the Double Dilemma of Black Women in Americ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44 (2003), 181-91.

Day, J., *Yahweh and the Gods and Goddesses of Canaan* (Sheffield: JSOT, 2000).

Eichrodt, W., *Ezekiel* (Old Testament Library; Bloomsbury: SCM Press, 1970).

Good, R. M., "The Just War in Ancient Israel",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4 (1985), 385-400.

Janzen, D., "Why the Deuteronomist Told About the Sacrifice of Jephthah's Daughter", *Journal for the Study of Old Testament* 29 (2005), 339-57.

Koehler, L., and Baumgartner, W.,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2 vols. (Leiden: Brill, 2001).

Marcus, D., *Jephthah and His Vow* (Lubbock: Texas Tech, 1986).

McCann, J. C., *Judges* (Interpret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Milgrom, J., *Leviticus 17-22*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2000).

Miller, P. D., *Deuteronomy*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O'Connell, R. H., *The Rhetoric of the Book of Judges* (Leiden: Brill, 1996).

O'Donovan, T. M., "Jephthah's Daughter: Interrogating the Text, Interrogating Our Lives", *Journal of Religion and Abuse* 7 (2005), 5-17.

Reviv, H., *The Elders in Ancient Israel* (Jerusalem: Magnes Press, 1989).

Robinson, B. P., "The Story of Jephthah and his Daughter: Then and

Now", *Biblica* 85 (2004), 331-48.

Sakenfeld, K. D.,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5 vols. Nashville: Abingdon, 2006-2009.

Samuel, C., "Reconsidering Jephthah's Story in Asian Perspective", *Journal of Asian and Asian American Theology* 6 (2006), 30-45.

Sjberg, M., "Jephthah's Daughter as Object of Desire or Feminist Icon", *Biblical Interpretation* (2007), 377-94.

Smith, M. J., "The Failure of the Family in Judges, Part1: Jephthah", *Bibliotheca Sacra* 162 (2005), 279-98.

Soggin, J. A., *Judges* (Old Testament Library; Bloomsbury: SCM Press, 1981).

검색어

인신제사

내전

우상숭배

입다 이야기

신학적 통일성

A Study on the Theological Unity of Jephthah's Story (Judg 10:6-12:7)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ian

SinHo Lim, Ph.D.

Lecturer at Han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the theological unity of the Jephthah's story (Judg 10:6-12:7)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ian. Much ink has been spilled on the story of Jephthah, but it has largely been focused on the theme of Jephthah's human sacrifice due to the difficulty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text as well as the lack of unity in the story of the human sacrifice in Judges 11 and that of the internal war in Judges 12.

Therefore, this study will argue that the three texts of Jephthah's story (Judg 10:6-12:7)—the story of war with Ammon (10:6-11:28), the story of Jephthah's human sacrifice (11:29-40) and the story of internal war between Jephthah and the tribe of Ephraim (12:1-7)—are to be understood as a series of events, and not separate ones, and thus to be studied as a unified story which was edited with cause and effect.

This study aims (1) to find out the cause of the religious and moral sins shown in Jephthah's story, (2) to investigate the problem of Israel's idolatry and disobedience from the aspect of religious sins, (3) to trace the sins of the individual and the community from the aspect of moral sins, (4) and to reveal the theological unity of Jephthah's story.

This study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story of Jephthah (Judges

10:6-12:7) was deliberately edited with a unified frame of cause and effect by the Deuteronomistic Historian.

Keywords

human sacrifice

internal war

idolatry

Jephthah's story

theological unity

■ 투고일: 2016년 1월 16일

■ 심사일: 2016년 1월 31일

■ 게재 확정일: 2016년 2월 9일